

朝鮮後期 忠淸道 地方 邑治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金 起 德

(淸州大學校 産業科學研究所)

李 在 憲

(淸州大學校 建築工學部 教授)

1. 序

朝鮮時代 地方統治行政의 중심지인 邑治는 15세기 중반 이후, 朝鮮王朝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 따라 공통된 통치시설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 외면상으로 획일적인 구조¹⁾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 都市에는 고을을 통치하기 위한 여러 行政施設과 市場이 있었으며, 또한 禮制와 관련한 일정한 시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社稷壇, 文廟, 厲壇과 같은 壇廟와 客舍가 일정한 조성원칙에 따라 지어졌다.²⁾

그러나 개개 건물의 空間構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邑治 또한 立地나 空間構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自然的, 人文的인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전체의 造營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본 研究는 朝鮮王朝의 획일적인 지방 統治體制속에서 형성된 邑治의 基本構造와 지형, 사상 등 당시의 다양한 諸般要因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 邑治의 모습을 통해 朝鮮後期 보편적인 邑治의 空間構造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邑治에 관한 연구³⁾는 어느 특정 지방

도시, 특히 邑城을 갖춘 邑治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朝鮮時代 지방 邑治의 보편적인 空間構造를 도출하지 못하고, 단지 특정한 지역의 邑治에 대한 상황만을 제시할 뿐이다.

물론 본 연구도 朝鮮 八道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忠淸道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54개 郡縣을 포함하는 道 단위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당시의 忠淸道가 다른 4개의 道와 접하고 있어,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日帝時代 일본인들의 의한 전통공간의 파괴와 해방이후 급속한 近代化의 물결속에서 原形을 간직한 전통적 邑治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朝鮮後期の 文獻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朝鮮後期 전국적인 지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된 『朝鮮後期 地方地圖』(1872年)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朝鮮時代 각 지방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1530年), 『忠淸道邑誌』 51冊(英祖~憲宗代), 『湖西邑誌』 17冊(1871年), 『[湖西]邑誌』 7冊(1895年), 『增補文獻備考』(1908年) 등 각종 地理誌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古地圖와 邑誌類에 나타난 邑治의 자연적인 요소와 주요 시설 등을 파악하고 각각의 立地와 坐向, 位置 등을 분석하여 朝鮮時代

1) 李助相, 朝鮮後期 邑治 社會의 構造와 祭儀, 歷史學報, 第147輯, 1995, p.47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p.160

3) 邑治의 관한 기존의 研究에 대해서는, 金起德·李在憲, 朝鮮後期 忠淸道 全義縣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歷

忠淸道 邑治의 전통적인 空間構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별로 고유하고 정체성 있는 지방도시를 造成하는데 있어, 그 지역의 역사적인 근간을 찾는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

2. 朝鮮時代 地方邑治 考察

2-1 邑治의 立地

朝鮮時代에는 시기에 따라 다소의 변화는 있었으나 대체로 전국에 걸쳐 대체로 330個 전후의 邑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邑들은 그 규모와 歷史·行政·軍事的 重要도에 따라 府·牧·大都護府·都護府·郡·縣 등으로 구분되어 位階的 體系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邑은 도시적 부분인 邑內와 그 邑內를 둘러싸는 여러 개의 面들로 구성되었는데, 邑의 政治·軍事的 重要도와 邑 자체의 經濟的 能力에 따라 邑의 중심인 邑內 주위를 城郭으로 둘러쌓기도 하였다.

朝鮮王朝의 지방사회에서 邑治를 중심으로 편성 운영된 郡縣體系는 단순한 행정 구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道傘下에 있는 並列의 단위로서 통례적인 명칭을 고을, 즉 邑이라 하였기 때문에 府·牧·郡·縣의 廳舍所在地를 邑聚落 혹은 邑內라 일컫게 되었다.⁴⁾ 따라서 邑聚落, 혹은 邑內는 中央官僚의 地方統治據點으로 邑治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邑의 形態는 家屋의 密度가 높은 集村을 이루었으며 邑內를 通過하는 國道の 兩邊에 시장과 가옥이 連立 배열하여 街村形態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도로는 國道에서 官門前 혹은 東軒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규칙하게 발달하였다. 聚落 構成面으로 볼 때 官衙의 집중이 나타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民家들이 몇 개 自然村落을 이루어 전체 邑聚落을 이룬다. 특히 官衙中心의 本村과 鄉校中心의 校洞은 대표적인 重要 村落이다.⁵⁾ 地方民에게는 郡縣體제가 일상생활권이며, 이들이 中央政府와 만나는 최고 단위이기도 했다. 郡縣의 廳舍所在地 즉 邑內들은 그 규모에 大小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情報의 集積地였고 대부분 5日마다 場市가 서서 商業的 去來地였으며 그 주민의 상당한 부분은 非農業的 또는 半農業的 職業人들이었다. 특히 당시의 情報媒體 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道路나 河川의 接合地點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邑內에서 이웃 邑內까지의 거리가 60里에서 110里, 평균 80里 정도 相距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邑內에서 그 領域內의 모든 中心聚落은 一日往復圈 內에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⁶⁾

韓國의 大部分의 村落이 風水思想의 影響을 받아 背山臨水⁷⁾가 立地의 第一主義를 이루었듯이 邑의 立地에도 風水說의 影響이 컸다.⁸⁾ 『輿地圖書』에서는 邑城이 있던 총 110個 고을 중 81個가 鎮山, 主山 혹은 邑主脈이라고 된 산이 있는데 이중 49.4%에 해당하는 鎮山이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鎮山을 결정하는 데는 산의 위치도 중요하였지만 그 산의 脈 및 根源이 보다 중요한 사항이었던 듯⁹⁾ 하며, 鎮山이나 主山의 의미는 우리의 傳統的 造營論理를 解釋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는데, 鎮山과 主山은 古代로부터 있어 왔던 우리 민족의 산과 밀접한 居住生活에서 발생되었다고¹⁰⁾ 보고 있다.

邑治 혹은 邑城이 위치하는 立地條件¹¹⁾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꼽히고 있는 곳은 넓고, 평평한 곳, 水泉이 풍부한 곳, 險阻함에 의지하는 곳, 交通이 편리한 곳, 肥沃한 土地가 있고 耕作地가 가까운 곳, 내부가 험하고 큰 곳, 주민들이 번성한 곳, 그리고 석재가 많아서 공력을 덜 수 있는 곳이 순위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立地條件 중에서 성내가 넓고 평평하며, 水泉 역시 풍부하

6) 孫禎陸,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8, p.56

7) 서유구(1764~1845)의 『林園十六志』 相宅志 占基總論을 보면 風氣를 감추고 모든 것과 바라보고 등지는 것의 편안함을 살핀다고 했다. (金鴻植, 韓國의 民家, 한길사, 1992, p.663)

8) 洪慶燮,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6, p.119

9) 李善英, 朝鮮時代의 邑城에 관한 연구, 尹張燮 編著,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0, p.324

10) 林東日, 朝鮮時代 官衙의 立地와 坐向을 통해 본 郡·邑의 造營論理 研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6, p.58, (林東日은 朝鮮時代의 郡·邑造營論理에서 산과 관계를 갖는 사항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에 의한 空間의 限定, 立地選定에서 背山의 문제, 建築物 前面으로 산을 도입하는 논리, 前後面에 산을 도입함으로써 視覺軸 形成 등을 들고 있다.)

11) 심정보, 한국의 성곽, 우리땅 우리문화, 국립청주박물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8, p.49

4)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畜社, 1995, p.260

5) 李琦錫, 舊邑 聚落에 관한 研究, 地理學, 第3卷 第1號, 1968, p.32

어야 한다는 것이 城基審定時 가장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성들이 비상시에 入堡하여 오랜 기간을 城內에 머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水源과 백성들이 거주하고 官舍를 설치할 만한 적당히 넓은 지형이 요구되었으며, 주위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충분히 경작할 만한 곳들이 선정되었다.

2-2 邑治의 諸般施設

(1) 行政施設

朝鮮時代 邑治는 기본적으로 行政中心地이다. 中央政府에서 임명한 地方官이 收稅 업무와 治安을 비롯한 行政業務를 총괄하는 곳이며, 이를 위한 각종 행정부서들이 존재하였다.

邑內에서 중요한 建物은 東軒과 客舍로서, 客舍의 실제적인 기능은 中央으로부터의 使臣들과 손님들을 맞이하는 손님접대기능 이외에도 國王의 位牌가 안치되어 초하루와 보름에 궁궐쪽을 向해 配享하였으므로 地方에서는 王權을 象徵하는 건물로서 대부분 邑治의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였다. 客舍에는 殿牌와 關牌를 모시는데, 殿牌는 임금, 關牌는 宮闕을 象徵¹²⁾한다.

客舍와 더불어 衙舍와 鄉廳이 官衙의 中心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각각 中央 政府의 王과 고을의 守令, 고을의 鄉民을 象徵하였는데 그 위치도 衙舍와 客舍는 邑城內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그 주위에 鄉廳, 作廳 등 여러 行政建物들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施設이외에 여러 가지 倉庫가 있었고 기타 行政施設들은 그 종류와 명칭이 고을의 행정상 위치, 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였다.

(2) 教育施設

朝鮮時代 教育施設로는 鄉校와 書院이 있었다. 鄉校는 한 고을에 하나씩 있었는데 대부분 邑城 바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書院은 邑城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있었다.

특히 朝鮮時代에는 國家의 統治理念이 된 儒學을 普及하고 祭享과 社會敎化 등을 위한 鄉校를 國家施策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하여 ‘一邑一校’의 原則 아래 전국적으로 건립하였다.¹³⁾ 高麗時代나

朝鮮時代に 地方에 설립되어 있던 教育機關라 하여도 文廟가 없으면 鄉校의 개념에 들지 않았다. 즉 鄉校는 地方民을 敎育하고 敎化하는 學校 이전에 ‘文廟’라고 하는 祭祀領域을 갖추고 있어 그 存在 의미가 있었다. 이 區域은 전통적인 儒學의 정신적 지주로 그 存在 가치가 컸던 만큼 鄉校 내에서 規模가 가장 크고 격식을 갖춘 大成殿을 중심으로 東·西廡가 함께 자리하여 형성되어진 區域이다.¹⁴⁾

(3) 祭祀施設

邑治의 祭祀를 위한 시설로는 社稷壇, 文廟, 城隍壇, 厲壇이 각 고을마다 있었다. 社稷壇은 土神과 穀神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 文廟와 함께 중요한 것이었다. 祀典에 등재된 城隍祭는 해당 지역의 守令이 王을 대리하여 지내고, 公卿에서부터 士庶人들은 家廟를 세워 각 신분에 따라 제사하되 이외의 제사는 모두 淫祀로 규정되어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¹⁵⁾

이들의 위치선정은 거의 일정한 法則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社稷壇은 城外 서쪽에, 文廟는 반드시 鄉校에, 厲壇은 城外 북쪽에, 城隍壇은 고을의 鎮山에 모셔졌는데 『輿地圖書』의 기록을 보면, 社稷壇은 약 75%가 城外 서쪽에, 厲壇은 80%가 城外 북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⁶⁾

城隍神을 모시는데 있어서 규정상 壇을 두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祠도 많았다. 厲壇은 후손이 없는 귀신 등 祭祀를 못받는 귀신을 제사지내던 곳으로 厲祭壇이라고도 했다.

(4) 商業施設

朝鮮時代 地方都市에서 商業은 전적으로 정기적인 場市에 의존하여 대부분 한 고을에 場市가 하나 정도 있었다. 邑城의 경우 城門外에서 場市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한 장소에서 날을 달리하여 上下場이 열리는 경우도 몇몇 있었다.¹⁷⁾ 규모가 작은 경우 열리는 날만 불비고 平時에는 빈터였으나 규모가 좀더 커지면 상설점포가 생기고 都家라고 불린 商人들의 集會所를 비롯하여 직장은 常設 店鋪들이 들어섰었다.

12)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卷 3號, 8606, p.80

13) 都龍昊, 儒學思想을 바탕으로 한 傳統敎育建築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淸州大 博士論文, 1995, p.42

14) 김지민, 한국유교건축의 재조명(2), 건축사, 9506, pp.83-84

15)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p.155

16) 이상구, 한국읍성의 공간구성 체계, 건축과 환경, 8605, p.57

17) 李善英, 前揭書, p.327

3. 忠淸道 地方 邑治의 立地

3-1 郡縣의 沿革

忠淸道는 본래 辰韓·馬韓의 땅이었는데, 百濟로 되었다가, 唐나라가 이를 멸망시키고 都督府를 설치하였다. 다음에 新羅의 소유가 되어 熊州를 두었고, 그 말엽에 弓裔와 甄萱이 나누어 차지하였으나, 高麗에서 이를 併合하여 楊廣道로 하였다가 뒤에 忠淸道라고 칭하였다.¹⁸⁾ 朝鮮朝에서 그대로 따라서 太祖 4년에 楊州와 廣州의 관할인 郡과 縣은 京畿에 붙이고, 忠州·淸州·公州·洪州의 관할인 郡縣은 그대로 忠淸道로 일컬어 각각 觀察使를 두었다. 太宗 13년에 驪興·安城·陰竹·陽城·陽智를 京畿에 붙이고, 慶尙道の 沃川·黃澗·永同·靑山·報恩을 본 도에 소속시켰다.¹⁹⁾

그러다가 仁祖朝에 公淸道로 改稱하고, 또 公洪道라고 일컫다가 곧 忠洪道라고 칭하였으나, 뒤에 다시 忠淸道라고 일컬었다. 觀察使의 監營이 公州에 있고, 관할 하는 牧이 4고을, 都護府가 1고을, 郡이 14 고을, 縣이 35고을이다. 그 후 正祖 元年(1777)에 洪忠道로 고쳤고, 純祖 25年(1825)에 公忠道라고 고쳤다가, 34年(1834)에 다시 忠淸道라고 일컬었다. 조선왕조 마지막 개편은 高宗 33年(1896)에 左道와 右道를 南道와 北道로 만들었다.²⁰⁾

이와 같이 忠淸道는 朝鮮 8道에서 가장 많은 道名의 개칭이 있었는데, 이는 朝鮮時代 界首官制²¹⁾에 의해서 道名이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忠淸道の 界首官인 忠州·公州·淸州 등지에서 역모가 발생하여 牧에서 縣으로 강등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그 때마다 道名도 개칭되었기 때문이다.²²⁾ 본 연구에서는 哲宗 13年(1862) 公忠道에서 高宗 8年(1871) 忠淸道로 바뀐 무렵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기의 문헌을 주 분석대상

으로 하였고 때문에 4牧, 1都護府 14郡, 35縣을 忠淸道の 郡縣 조직으로 한다.

高宗 8年(1871)의 충청도 지방행정구획을 기준으로 할 때 忠淸道에는 公州·淸州·忠州·洪州의 4개 牧과 淸風의 1개 都護府가 忠淸道の 주요 지방 도시이며, 牧에는 兵營과 巨鎭을 두어 주변 郡縣의 군대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朝鮮後期 忠淸道 지방의 郡 단위 도시에는 槐山郡, 丹陽郡, 大興郡, 德山郡, 沔川郡, 報恩郡, 瑞山郡, 舒川郡, 沃川郡, 溫陽郡, 林川郡, 天安郡, 泰安郡, 韓山郡 등 14개 지역으로 대부분 三國時代의 百濟의 땅이었으며, 槐山郡과 丹陽郡은 高句麗의 영토였다. 報恩郡과 沃川郡은 본래 新羅에 속하였으며, 三國統一후 모두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 후 高麗에 속하였다가 朝鮮初의 郡縣制 개편에 따라 從4品官 郡守가 통치하는 郡이 되었다.

忠淸道地方의 縣단위 고을은 35개 지역으로 從5品官인 縣令이 다스리는 文義縣을 제외하고 모두가 從6品官인 縣監이 外官으로 파견되었다. 이들 지역은 三國時代 高句麗와 百濟의 땅이었으며, 본래 新羅의 영토였던 永同縣, 永春縣, 靑山縣, 黃澗縣과 新羅의 통일 후 모두 新羅에 부속되었다가, 후에 高麗에 속하게 되었다.

표 1. 忠淸道地方 牧의 戶口와 田結

| 牧 | 戶數 (輿地圖書) | 人口 (輿地圖書) | 田結 (經世遺表) |
|-----|--------------|--------------|--------------|
| 公州牧 | 15,602 | 42,621 | 21,500 |
| 淸州牧 | 12,749 | 42,910 | 19,300 |
| 忠州牧 | 19,624 | 107,693 | 21,500 |
| 洪州牧 | 11,591 | 49,060 | 18,674 (湖西) |

朝鮮 太祖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郡縣改編은 太宗 때에 이르러 구체화되었으며, 世祖朝의 併審事目²³⁾이 나올 때까지 半世紀에 걸쳐 거의 끝을

18) 국역 增補文獻備考, 第16卷, 輿地考 4, 郡縣 沿革 2, 忠淸道

19) 국역 新增東國輿地勝覽, 第14卷, 忠淸道

20) 국역 增補文獻備考, 前揭

21) 界首官이란 서울에서 各道에 이르는 本街道의 道界에 있는 고을을 말하며, 이는 고려시대 이래로 지방통치행정이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았을 때, 主縣과 屬縣으로 이원화하고 主縣 중 大邑인 京, 都護府, 牧을 界首官으로 정하여 일정 主縣을 領縣으로 거느리게 하고 중앙정부가 界首官을 통하여 지방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던 제도이다. (李義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p.106)

22)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도서출판 해안, 1999, p.165

23) 국역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世祖 2年 11月, 己丑 “① 本邑과 응당 병합할 땅을 그 居民의 官殺 출납과 詞訟 왕래의 道里 遠近을 참고할 것. ② 병합한 뒤에 使客 양례에 있어 사방 이웃 州郡들이 道理가 멀어 반드시 숙박할 땅이라면, 支供에 폐단이 있고 없는 것을 아울러 살펴 헤아릴 것. ③ 병합하는 것은 반드시 두 고을이 아니고 혹 세 고을 혹 네 고을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④ 이와 같이 하면 토지가 고르고 가지런하여져서 저절로 犬牙相入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다른 郡에 合屬하는 땅을 아울러 살펴질 것. ⑤ 本邑과 병합한 읍의 人吏·官奴婢·民戶의 수효와 山川·

맷었는데, 郡縣改編의 원칙은 戶口의 多少, 土地의 廣狹, 地理的 遠近, 事務의 便宜 등을 참작하여 각 郡縣을 고르게 병합 재편하자는 것²⁴⁾이었다.

이와 같이 朝鮮王朝는 중앙집권적 통치체계의 수립을 위한 地方行政의 體制를 府·牧·郡·縣 등으로 階層을 두었는데, 이는 國家와 王室의 重要性, 土地의 廣狹, 戶口와 田結의 多少로 차등을 정하게 되었다. (표 1.)²⁵⁾은 忠淸道地方 4개 牧의 戶口와 田結數로 人口가 4만명 이상, 戶數가 萬戶 이상이며, 田結數는 18,000 이상 등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고을이 강상죄 등으로 인하여 縣으로 강등되더라도 3年 정도가 지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상례였다.

3-2. 邑治의 立地

朝鮮朝 聚落은 지세조건이 聚落立地의 類型뿐만 아니라 立地構造와 機能, 그리고 特性까지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하고도 決定的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當時의 地理的 價値觀이었던 風水說로 생각되는데, 이는 朝鮮 朝의 대표적인 官撰地理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모든 邑聚落 山川條에 반드시 鎮山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²⁶⁾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邑治의 立地選定을 風水地理의 사고체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地理觀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山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로서 사람들의 공간인식 체계에는 山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산과 물에 의한 立地選定은 風水地理라는 사고체계와 결부되어 작용되었을 것이다.

李重煥도 『擇里志』에서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첫째 地理, 다음 生利와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 등,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였다.²⁷⁾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의 地理觀인 風水地理

에 의한 邑治의 해석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風水地理의 기본 구성요소는 山, 水, 方位이며 山은 邑治의 鎮山으로 대표되며, 水는 邑治를 감싸는 주요 河川으로 볼 수 있다.

忠淸道地方 郡縣의 대부분은 邑治의 공식적인 鎮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鎮山이 고을을 鎮護하는 主山 혹은 後山이라는 風水的 사고이며, 시각적 이미지로 볼 때 邑治를 表象하는 代表物으로써 標識의 역할을 갖는²⁸⁾ 대표적인 山으로 四神砂의 玄武에 해당된다. 鎮山의 의미성은 그것이 방어나 계절풍과의 관계에 의한 合理的인 이유 이외에도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聚落立地에 대한 특이한 風水思考의 표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⁹⁾

『朝鮮後期 地方地圖』에서 파악된³⁰⁾ 忠淸道地方 54개 郡縣중에서 35개 邑治가 南向하고 있으며, 다음 東向이 8개, 西向이 6개, 東南向이 3개, 西南向이 2개 등으로 대부분이 南向이거나 南向에 가까운 向을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이 해양성 기후이고 물이나 日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선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公州牧, 延豐縣, 藍浦縣, 懷德縣, 連山縣 등은 불리한 西向을 취하고 있는데, 公州牧의 경우는 邑治의 동쪽과 서쪽에 監營과 府衙가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으며 東向하는 監營에 좋은 위치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藍浦縣과 海美縣(西南向)은 沿海邑城으로 西海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西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忠淸道地方 郡縣의 鎮山는 37개 지역으로, 절대적 방위개념으로 살펴볼 때, 邑治의 동쪽에 鎮山이 있는 경우가 4개 지역, 서쪽에 위치한 경우가 10개 지역, 남쪽이 2개 지역, 그리고 鎮山이 북쪽³¹⁾에 위치한 邑治가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邑治가 南向하는 경우, 대부분의 郡縣에서 북쪽이나 동북쪽, 혹은 서북쪽에 鎮山이 위치하며, 邑治가 東向하는 경우는 서쪽으로 鎮山을 삼았다. 이는

區域을 아울러 詳考할 것. ⑥ 만약 본래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큰 읍은 병합할 필요가 없다.”

24) 孫禎陞, 前掲書, pp.52-53

25) 公州·淸州·忠州·洪州의 4개 牧의 戶口와 田結은 다음의 研究와 湖西邑誌를 통하여 필자가 재작성한 것이다.(崔壹聖, 忠州牧 研究, 鮮明大 博士論文, 1997, 孫禎陞, 朝鮮時代 都市社會 研究, 1994, 湖西邑誌, 洪州牧)

26)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95, p.273

27) 李重煥 著, 李翼成 譯, 擇里志, 음유문화사, 1998, p.121

28) 崔秉煥, 韓國 古郡邑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11, No.2, 1973, p.223

29) 崔昌祚, 前掲書, p.273

30) 각 邑治의 向은 朝鮮後期 地方地圖, 충청도편(서울대학교 奎章閣, 1998)에서 地圖上에 기록된 郡縣의 方位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방위가 누락된 경우는 邑誌에 기록된 자연물과 시설들의 위치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실측된 邑治와 官衙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2. 忠淸道地方 邑治의 向에 따른 鎮山의 位置 (新增東國輿地勝覽)

| 南向하는 邑治 | 東向하는 邑治 | 西向하는 邑治 |
|---|--------------------------------------|----------------------------|
| | | |
| A: 淸州牧 木川縣 燕岐縣 B: 天安郡 保寧縣 C: 魯城縣 沔川郡 扶餘縣 禮山縣 永同縣 沃川郡 溫陽郡 林川郡 陰城縣 堤川縣 靑陽縣 D: 全義縣 E: 稷山縣 靑山縣 韓山郡 F: 永春縣 恩津縣 | A: 結城縣 B: 槐山郡 大興郡 鎭岑縣 鴻山縣 洪州牧 懷仁縣 | A: 懷德縣 B: 公州牧 C: 藍浦縣 |

鎭山의 명칭이 後山이라고 하여 邑治의 背面에 위치하여 邑治를 鎭護하는 것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邑治의 鎭山과 明堂川(大興郡)

한편 慶尙道의 大丘府와 같이 南向하는 邑治임에도 불구하고 鎭山과 案山이 모두 邑城의 남쪽에 위치하는³²⁾ 것과 같이 忠淸道地方의 郡縣에서도 永春縣, 恩津縣, 藍浦縣 등에서 邑治의 前面에 鎭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鎭山은 대부분 邑治에서 1~5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은 10리 이내에 위치하여 後山이라는 개념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다. 그러나 恩津縣의 경우에는 남쪽 24리에 있는 산을 鎭山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鎭山의 실질적인 機能뿐만 아니라, 都邑이면 모름지기 鎭山이 있어야 된다는 風水의 思考가 그와 같은 無理를 하면서까지 鎭山의 개념을 도입했던 것³³⁾으로 생각된다.

邑治를 흐르는 주요 河川을 朝鮮後期 忠淸道 地方地圖를 통해 살펴보면, 邑治의 前·後面이나, 側面을 휘감아 흐르는 경우와 邑治의 左·右側에서

31)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朝鮮時代 330개 郡縣의 기록 중에 鎭山이 기재되지 않은 郡縣은 63개뿐이고 나머지 267개 郡縣에 鎭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된 鎭山의 位置는 北이 129개로 전체의 약 48%이고 東北이 9개, 西北이 5개로 모두 53%이상에 해당하는 143개 郡縣이 북쪽으로 기재되어 있다. (李相楳, 朝鮮中期 邑城에 관한 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3, p.103)

32) 芮明海, 朝鮮時代 地方都市의 空間構成原理에 관한 研究 (1),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國土計劃」第33卷 第6號, 1998. 12, p.45

33) 崔昌祚, 前掲書, p.285

흘러나와 前面에서 合水하여 흘러나가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邑治의 坐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그림 1.)에서와 같이 邑治의 鎭山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邑治의 주요하천이나 明堂川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에서 山과 水에 의한 風水의 思考의 적용은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되며,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고 이용할 때 山과 水에 의한 자연적 조건은 造營體系에도 질서를 잡아주는, 즉 地方 邑治선정의 제일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邑治의 立地條件을 社會的 要因으로 살펴보면, 첫째 既存의 邑治였던 곳을 이용, 둘째 該當 行政區域에서 空間的으로 중심적 位置일 것, 셋째 地方 중심지로서의 機能을 收容할 만한 空間일 것, 넷째 交通이 편리해야 할 것, 다섯째 瘠薄하거나 低濕한 지대가 아닐 것, 여섯째 물이 있는 곳 등으로 假定해 볼 수 있으며,³⁴⁾ 이는 漢陽이 首都로 선정된 배경 중에서 風水地理적인 觀點이 아닌 儒敎的인 合理觀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風水地理的인 조건만으로 邑治의 立地選定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이고 합리적인 제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邑治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 邑城築造의 目的과 規模

城郭이란 外部의 侵入이나 자연적인 災害로부터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한 人爲적인 施設物로, 城은 內城을 가리키는 것이고 郭은 外城만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城郭을 城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都城이 한 나라의 중앙 도시라면 邑城은 지방 도시라 할 수 있으며, 邑城의 역사적 공간구조와 가치의 중요성은 그것이 도시의 역사적 原形體³⁵⁾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邑城은 城郭 축조의 목적인 防禦의 목적, 즉 要害處에 築城을 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農耕生活에 불편을 주지 않고 地方官의 신변을 위협으로부터 막는 기능과 都市的·經濟的 성격을 지닌 行政都市라는 行政的 機能, 그리고 國境과 沿海지역에

축성하는 戰略的 機能 등³⁶⁾을 수행하며, 邑城을 축조한 郡縣은 城郭이 갖는 폐쇄적 형태로 인하여 境界와 領域을 갖는 計劃原理에 따른 空間構造로,³⁷⁾ 일반 郡縣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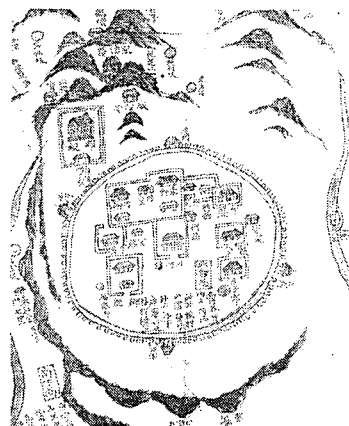


그림 2. 忠淸道 韓山邑城

高麗末期에 山城과 邑城이 築造된 것은 倭寇때 문이었으며 禡王代 이후 築城의 방향이 內地의 가장 중요한 都市가 1차적인 축성대상이었고, 다음으로 倭寇의 요충이 되는 巨邑이 축성대상이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沿海諸邑으로 築城이 확산되어 갔다.³⁸⁾

그러나 忠淸道 地方의 경우 당시의 행정구역을 적용할 때 高麗後期에 築城된 邑城은 없었는데, 이는 倭寇의 주요 침략지점이 慶尙道の 海岸地域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朝鮮中期 이후 下三道의 邑城 보유현황이 全羅道 26, 慶尙道 32, 忠淸道 13 邑城³⁹⁾ 등으로 慶尙道와 全羅道에서 월등하게 많은 邑城이 築造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朝鮮後期 忠淸道地方에 邑城이 있었던 郡縣은 13개 고을로 忠州牧, 淸州牧, 洪州牧, 沔川郡, 瑞山郡, 泰安郡, 舒川郡, 韓山郡, 海美縣, 結城縣, 保寧縣, 藍浦縣, 庇仁縣 등으로 高宗 때의 기록인 增補文獻備考에서와 같이 모든 邑城이 石築으로 되어 있으며 堞와 堞, 女牆, 그리고 雉城이나 曲城, 甕城을 갖추고 東·西·南·北에 3개 혹은 4개의 門과 門樓를 만들었다.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원래 忠淸道地方의 邑城⁴⁰⁾은 20개 郡縣이었으나, 이미 朝鮮中期 이전

34) 林東日, 朝鮮時代 官衙의 立地와 坐向을 통해 본 都·邑의 造營論理 研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6, p.184

35) 김선범, 城郭의 都市原形의 解釋: 조선시대 邑城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2호, 1999, pp.18-24

36) 方相鉉, 朝鮮前期城郭機能考, 단국사학회, 史學志·朴武成博士華甲紀念論叢, 第16輯, 1982, pp.672-681

37) 김선범, 前揭論文, p.24

38) 車勇杰,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 忠南大 博士論文, 1988, pp.27-29

39) 李相棣, 前揭論文, pp.116-122 參照

40) 국역 增補文獻備考 제26권, 輿地考 14, 關防 2, 忠淸道

에 林川郡, 扶餘縣, 大興郡, 新昌郡, 唐津縣, 永同縣, 德山郡 등 7개 邑城이 邑治의 이전, 혹은 옛 古都 등으로 인하여 廢城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록에는 우물과 연못의 기록이 빠짐없이 보이는데, 이는 敵軍에 함락 당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충분한 食水가 邑城 築造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말해준다.

고려 후기 倭寇들의 侵奪에 대비하기 위해 沿海地域에 築造되기 시작한 邑城은 무엇보다도 軍事的인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湖西地方 沿海邑城의 築造 目的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⁴¹⁾ 『萬機要覽』(純祖 年間 1801~1834)에 나타난 忠淸道의 沿海邑⁴²⁾은 舒川郡, 庇仁縣, 藍浦縣, 唐津縣, 保寧縣, 結城縣, 洪州牧, 海美縣, 瑞山郡, 泰安郡, 沔川郡, 牙山縣, 稷山縣, 平澤縣 등 14개 郡縣인데, 이 중에서 牙山縣, 稷山縣, 平澤縣 등 세 곳을 제외하고 11개 郡縣에 모두 邑城이 築造되었다.



그림 3. 忠淸道 沿海邑과 水營

그러므로 忠淸道 전체 邑城 13개 지역 중에서 11개 郡縣이 沿海邑城이므로 忠淸道地方의 邑城은 防禦를 목적으로 하는 沿海邑城이라고 보아도 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 邑城은 淸州邑城과 忠州邑城인데, 이 지역들은 世祖 즉위 후 설치된 鎭管體制⁴³⁾에 따른 지방 행정구역 개편으로 忠淸道 兵營과 巨鎭을 설치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邑城이 築造된이라 하겠다.

鎭管體制하에 忠淸道의 5개 鎭管은 公州, 忠州, 洪州, 天安, 淸州 등에 설치되었다. 增補文獻備考에 天安은 高麗 太祖가 忠淸道의 中央에 있다하여 都督府를 두고 군사를 훈련시킨 곳으로 地形이 占據할 가치가 있고, 忠州는 漢陽의 방어선으로서 賊兵의 침공을 완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京城과 맞먹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邑城 築造의 특징, 즉 行政上의 位階가 높을수록 邑城의 保有比率이 높다는 것, 이는 經濟的으로 능력이 있는 郡縣이 邑城을 建築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는 規模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忠淸道地方의 邑城築造는 防禦를 목적으로 築造된 沿海邑城과 軍事的인 요충지로서 지방 군사조직의 중요 거점에 築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忠淸道를 관할하는 監營의 소재지인 公州의 경우에 鎭營이 설치되는 반면 邑城은 築城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邑誌類에 나타난 忠淸道地方의 모든 邑城은 石築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1,500尺~6,600尺(900-1800m)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 用尺 또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통건축의 해석에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자면 당시의 사용한 用尺의 파악⁴⁵⁾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일례로 華城을 쌓을 때, 土木工事に 해당하는 부분은 周尺을 사용하고, 건물을 지을 때에는 營造尺을 사용⁴⁶⁾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朝鮮時代의 지방 군사조직인 主鎭·巨鎭·諸鎭의 체계를 이르는 것으로, 世祖 3年(1457)에 軍翼道 체계를 개편하여 兵馬節度使나 水軍節度使가 관할하는 主鎭아래에 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몇 개의 巨鎭을 두고, 그 밑에 節制都尉·萬戶 등이 관할하는 여러 鎭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이루었다.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卷四, 1997, p.646)

44) 국역 增補文獻備考 제26권, 輿地考 14, 關防 2, 忠淸道

45)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朝鮮時代 邑城의 築造에서 圍郭의 用尺은 영남지방 5개 邑城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布帛尺(44.26cm-48.71cm)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金善範·韓三建, 朝鮮시대 邑城圍郭의 用尺에 관한 研究,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國土計劃」第33卷 第2號, 1998. 4)

46) 申榮勳, 韓國古建築斷章 上, 東山文化社, 1975, pp.82-83

41) 沈正輔, 朝鮮時代 湖西地方 沿海邑城의 機能에 대한 考察, 湖西文化研究 第14輯, 1996, p.11 參照

42) 李萬運, 萬機要覽 九, 軍政編 四, 海防條

표 3. 忠淸道地方 官衙의 規模 (자료: 湖西邑誌)

(間)

| | 客舍 | 東軒 | 內衙 | 內冊室 | 冊室 | 戶籍庫 | 工庫 | 公須 | 使令廳 | 官廳 | 鄉廳 | 軍官廳 | 軍器庫 | 軍器廳 | 作廳 | 邑司 | 將廳 | 通引廳 | 長房 | 奴房 | 刑廳 | 砲手廳 | 祠堂 | 及唱房 | 合計 | 備考 | |
|-----|----|----|------|-----|-----|-----|----|----|-----|----|----|-----|-----|-----|-----|----|----|-----|----|----|----|-----|----|-----|-----|---------|---------|
| 公州牧 | 32 | 11 | 18 | | | 1 | 4 | | | | 18 | | | | 15 | | 17 | 8 | 27 | 12 | 9 | | | | 172 | 客舍-輿地圖書 | |
| 忠州牧 | 48 | 28 | 27 | | 4 | | | | | | 17 | 15 | | | | | | | | | | 12 | | | | 151 | |
| 韓山郡 | 27 | 12 | 22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天安郡 | 15 | 7 | 18 | | 5.5 | 1 | 2 | | | 3 | 7 | 5 | | | 14 | 3 | | | | | 6 | | | | | 86.5 | |
| 泰安郡 | 28 | 10 | 15 | | 3 | | | 10 | | 9 | 10 | | | | 9 | | | | | | | | | | | 94 | |
| 溫陽郡 | 37 | 12 | 22 | | 6 | | | | 8 | 12 | 12 | 2 | 3 | 16 | 6 | 9 | | | 3 | | | | | | | 148 | |
| 林川郡 | 22 | 10 | 15 | | | | | | | | 5 | 5 | | 10 | 5 | | | | | | | | | | | 72 | |
| 全義縣 | 20 | 8 | 15.5 | 4 | 3 | | 3 | | | 4 | 8 | 4 | 2 | 5 | 14 | | 4 | | | | | | 4 | | | 98.5 | |
| 稷山縣 | 22 | 14 | 26 | 3 | 6 | | | | 6 | 8 | 11 | 3 | | 11 | 7 | 6 | 6 | | 3 | 5 | | | | 2 | | 139 | |
| 木川縣 | 3 | | 14 | | 4 | | 3 | | | 4 | | 6 | 5 | | 15 | | | | | | 8 | | | | | 62 | 忠淸道邑誌 |
| 鎭川縣 | 25 | 11 | 16 | 5 | | | | 4 | | 4 | 9 | 10 | | 21 | | 9 | | | | | | | 3 | | | 117 | 忠淸道邑誌 |
| 保寧縣 | 10 | 4 | 15 | | | | 3 | 6 | 4 | | 8 | 8 | | 4 | 10 | 8 | 7 | | | | | | | | | 87 | |
| 禮山縣 | 10 | 4 | 11 | | 3 | | | | | | | | | | | | | | | | | | | | | 28 | |
| 唐津縣 | 37 | | | | | | | | 8 | | 13 | | | | 15 | | | 5 | | | | | | | | 78 | |
| 鴻山縣 | 41 | 15 | 24 | | 7 | | | 7 | 12 | 7 | 19 | 4 | | 23 | 附作廳 | 19 | | | | | 10 | 附將廳 | | 5 | | 193 | |
| 庇仁縣 | 4 | 4 | 6 | | 2 | | | | 6 | 5 | 5 | | | | 12 | | 7 | | | | 4 | | | 3 | | 58 | |
| 鎭岑縣 | 10 | 8 | 10.5 | | | | | | 4 | | | | | | | | | | | | | | | | | 32.5 | |
| 連山縣 | 8 | 8 | 10 | | | | | | | 3 | 6 | 4 | 3 | 8 | | | | | 8 | | | | | | | 58 | 客舍-輿地圖書 |
| 魯城縣 | 31 | | | | | | | | | 13 | | | | 6 | 6 | 3 | | | | | | | | | | 59 | |
| 石城縣 | 12 | 4 | 17 | | | | | | | 6 | | | | | | | | | | | | | | | | 39 | |
| 燕岐縣 | 56 | | | | | | | | | 15 | 12 | | | 7 | 13 | | | | | | | | | | | 103 | |

忠淸道地方 邑城을 현재의 미터법으로 조사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忠州邑城이 둘레가 약 1,220m로, 47) 營造尺(31.22cm)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淸州邑城은 1,770m 정도로 布帛尺(46.73cm)이 추정된다. 그리고 洪州邑城은 1,859m로 湖西邑誌에 量出尺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사용된 尺度는 營造尺으로 보이며, 48) 海美邑城은 약 1,498m(周尺, 20.83cm) 정도, 沔川邑城은 약 1,200m(布帛尺) 정도, 舒川邑城은 약 1,190m(營造尺, 31.22cm) 정도, 韓山邑城은 1,820m(布帛尺) 정도, 保寧邑城은 약 870m (布帛尺)정도, 庇仁邑城은 南北으로 긴 타원형으로 약 1,500m(布帛尺)정도, 藍浦邑城은 1,100m(布帛尺) 등 49)으로 규모와 사용 用尺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朝鮮時代 邑城의 築造에서 사용된 기준 尺度는 布帛尺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郡縣에 따라 朝鮮時代に 널리 사용되던 周尺과 營造尺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布帛尺은 피륙들 짤 때 사용하던 尺으로써 朝鮮時代 關防을 측량 50)할 때 주로 사용하였던 기준 척도였다.

일반적으로 邑城의 규모, 즉 城의 大小는 地方 郡縣 행정관의 官職品位를 평가할 수 있어 府使나 縣監의 差異는 곧 城郭의 규모에 나타난다고 51) 할 수 있는데, 忠淸道地方 邑城의 規模에서도 높은 品階를 가진 守令이 거주하는 邑城이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海美邑城의 경우를 보면 地方官의 品階는 縣監임에도 불구하고 邑城의 규모가 크게 築造된 것은 海美邑城의 본래 축조목적이 忠淸道 兵馬節度使營城 52)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7) 許仁旭, 忠州 邑城 考, 藥城文化 第14號, 1993, p.39

48) 충청남도, 충남 古都 옛모습 되살리기, 2001, p.375

49)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9, pp.238-329 參照, 邑城의 규모에서 尺度의 계산은 朝鮮王朝 諸尺度 중에서 英祖 26年 改尺度를 사용하고, 『輿地圖書』(英祖37年)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50) 국역 朝鮮王朝實錄, 文宗實錄, 文宗1年 5月, 壬寅, 世祖實錄, 世祖11年 11월, 丁未 등 參照

51) 方相鉉, 前揭論文, p.676

52) 海美邑城은 太宗 18年(1418)에 德山으로부터 兵馬節度使營을 海美로 옮기게 됨에 따라 營城을 築造하게 된 것이다. 이 兵馬節度使營은 孝宗 2年(1651) 淸州로 移設되기까지 250餘年에 걸쳐存續되었다.(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 1991, pp.385-386)

4. 邑治의 構成要素

4-1 官衙施設

공통적으로 地方官衙는 郡縣의 統治者인 守令의 空間과 官屬二班인 吏屬·軍校·奴婢 등의 人的構成과 이들의 업무공간들로 構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통치시설과 職任은 朝鮮王朝가 邑治마다 官認 祭祀施設을 설치하여 지방민들의 正心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높이고 郡縣制의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官衙公廨 중에서 司倉 등을 제외한 官舍부분에 대한 시설규모⁵³⁾를 『湖西邑誌』의 公廨條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주로 기재되는 시설은 客舍, 東軒, 內衙, 冊房, 戶籍庫, 公須, 使令廳, 官廳, 鄉廳, 軍官廳, 軍器庫, 作廳, 邑司, 刑廳, 將廳, 通引廳, 長房, 奴房, 砲手廳, 祠堂, 及唱房 등이며, 특히 각 郡縣마다 대부분 기재되는 客舍, 東軒, 內衙, 官廳, 鄉廳, 作廳, 邑司 등의 시설들이 官衙建築에서 중심시설임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朝鮮後期 地方地圖』에 그려진 시설들과 동일한 시설들이 기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官衙의 시설은 크게 客舍, 東軒, 鄉廳과 作廳 그리고 將廳 등의 行政廳 등으로 구성되고, 기타의 廳舍들은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들로 볼 수 있다.

4-2 壇廟施設

儒敎文化圈 속의 中國 내지는 韓國의 中世社會에 있어서, 한 時代를 지배하던 政權擔當者의 신앙은 곧 국가적인 祀典을 통하여 표현되어 왔고, 이 경우 祀典은 단순한 하나의 信仰規範 만이 아니라, 곧 當代의 統治者가 역사 속에서 志向하며 실현하고자 하던 신념과 意志의 反映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⁴⁾

朝鮮時代에 이르러 특정 祭祀를 제외하고는 모든 郡縣이 통일된 祀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고을마다 鎮山이 지정되고 文廟·社稷壇·城隍

壇·厲壇 등이 설립되고 종래 잡다한 민간신앙은 이를 非儒敎的인 것으로 규정하여 금단하였으며,⁵⁵⁾ 이러한 정책은 太宗·世宗대에 크게 進陞을 보이는 地方 行政의 一元化定策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 즉 政治·行政의인 통제와 並行하여 그 백성의 각자가 慣行해 온 傳統的, 任意的인 자연신앙을 制度的, 社會的인 王土信仰으로 一元化 시켜가고 있었던 것이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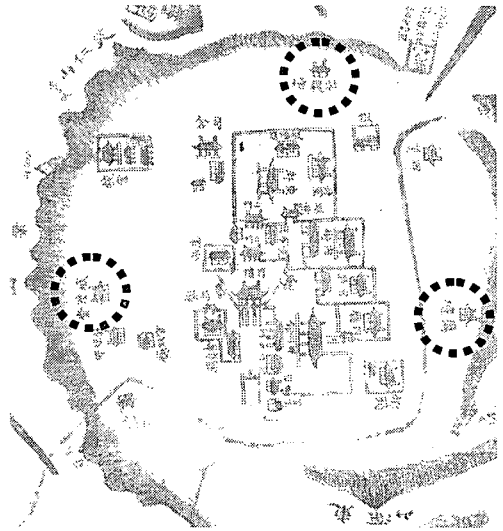


그림 4. 忠淸道 牙山縣의 社稷壇·厲壇·城隍壇

『增補文獻備考』에 이르기를 地方郡縣의 社稷壇은 城의 서쪽에 있다⁵⁷⁾고 하였듯이 忠淸道地方 邑治의 社稷壇도 대부분의 郡縣에서 서쪽 5里 以內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淸風都護府, 林川郡, 延豐縣, 鎭岑縣 등은 社稷壇이 남쪽에 위치하고, 槐山郡과 燕岐縣은 동쪽에, 黃澗縣은 북쪽에, 禮山縣은 서북쪽에 위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後孫이 없이 떠도는 鬼神을 위한 厲壇의 경우는 대부분이 북쪽 5里 이내에 건립되었으나 大興郡, 永同縣, 黃澗縣, 結城縣, 海美縣, 平澤縣 등에서는 邑治의 동쪽이나 서쪽에 위치하여 통례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社稷壇은 서쪽, 厲壇은 북쪽이라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城隍神은 원래 성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도시의 수호신임을 생각할 때, 朝鮮初 邑城의 확대는

53) 官衙施設의 규모는 건물의 정면 間數만 기록된 경우와 전체 間數를 기록한 경우, 그리고 主建物에 부속된 시설까지를 합산한 경우까지 각 郡縣마다 다양하다.

54) 金泰永,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 歷史學報, 第58輯, 1973, p.105

55) 李樹健, 前掲書, pp.238-240

56) 金泰永, 前掲論文, pp.121-122

57) 국역 增補文獻備考, 제54권, 禮考 1, 朝鮮

城隍信仰 확산의 좋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城隍祠 중에는 山城에 있는 것도 많은데, 모든 郡縣에 邑城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城隍祠를 山城에 건립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방 행정 구획과 대응관계를 이루는 城隍祠는 邑治 또는 邑治와 가까운 鎮山에 있었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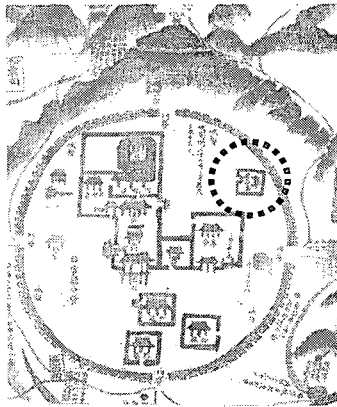


그림 5. 沔川郡의 城隍祠

忠淸道地方의 경우, 城隍壇이 邑治의 鎮山이나 鎮山자락에 있는 郡縣은 21개 지역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四方에 일정한 원칙 없이 건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城隍壇도 厲壇과 비슷하게 邑治에서 5리 이내에 위치하며, 恩津縣의 경우와 같이 12리나 떨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沔川郡(그림 5.)와 같이 城內에 건립되기도 하였다. 文廟는 鄉校에 설치된 제사공간으로 孔子와 先賢에 대한 제례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儒學의 상징이었고, 地方民에게는 유교이념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地方官衙에서 멀지 않은 2~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4-3 邑治의 場市

朝鮮時代 地方郡縣에는 漢陽의 市廛과 비슷한 성격의 상가가 開城, 平壤, 全州와 같은 지방의 큰 도시에도 있었으나, 지방의 조그만 邑에서는 15세기 말부터 場市 또는 場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다. 대개 닷새마다 열리는 장시에는 匠人이나 농민들이 자체생산품을 내다 팔거나 裸負商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팔았다.⁵⁹⁾

地方 場市의 발생을 살펴보면, 이것은 오랫동안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成宗 元年(1470)에 全羅道

에서 일어난 흉년을 계기로 생기기 시작하였다.⁶⁰⁾ 場市는 일단 출현하자, 各邑과 各道로 확산되고 보급되었으며 이 현상은 16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全羅道를 기점으로 하여 忠淸道와 慶尙道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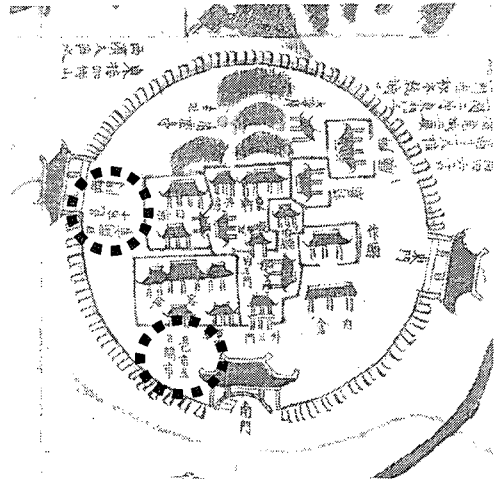


그림 6. 海美邑城 內의 場市

地方場市는 교통의 요충지나 혹은 物貨集散地에서 開市되는 것이 보통으로 성립초기⁶¹⁾에는 한 달에 2회 내지 3회 개시되는 10일, 15일장이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대개 5일 만에 한번씩 열리는 1개월 6개 시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이들 場市는 邑治를 중심으로 30리내지 40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設場日을 달리하여 개시함으로써, 농민들을 비롯한 상인들이 각 장시의 巡歷을 가능하게 하였다.⁶²⁾

湖西地方의 場市를 살펴보면, 54개 郡縣중에서 舒川郡과 石城縣을 제외하고 1~4개 정도의 場市가 開設되고 있었으며, 이 場市들은 모두가 5日場으로서⁶³⁾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郡縣의 규모가 크고 品階가 높은 公州牧, 淸州牧, 洪州牧,

58) 『湖西邑誌』 鴻山縣, 壇廟條 “在縣西鎮山”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pp.387-441 (城隍에서 城은 성벽을, 隍은 성벽을 둘러싼 空濠를 뜻하므로 城隍은 성벽과 空濠로 둘러싸인 도시라는 의미이며, 城隍神信仰이란 성곽도시의 수호신에 대한, 도시인의 신앙체계라고 보고 있다)

59)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조선시대, 경세원, 2000, pp.88-89

60) 국역 朝鮮王朝實錄, 成宗 4年 2月, 壬申 “庚寅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場門이라 불렀는데...”

61) 明宗初에는 各邑 場市의 出市日을 모두 同一日字로 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盜賊熾盛에 대한 방책으로 세워진 조치였는데, 결국은 場市에 대한 朝廷의 공식적인 승인이 된 셈이었다. (李景植,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vol.57, 1987, p.89)

62)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研究, 國學資料院, 1997, p.141

63) 『林園經濟志』 倪圭志 卷第四, 貨殖, 八城場市

忠州牧 등 牧에서 많은 場市가 개설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왕래와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地方의 邑治에는 하나 이상의 場市들이 열리고 있었으며, 邑內 혹은 城內에 開設되고 있는 場市들의 명칭은 대부분 邑이나 城을 중심으로 하는, 邑內場이나 城內場 등으로 불리고 있다. 忠州牧과 瑞山郡, 그리고 結城縣의 경우와 같이 城內와 城外의 두 곳에서 5日場이 열리기도 하였으며, 鎭川縣이나 海美縣(그림.6)의 경우와 같이 두 곳에서 번갈아 가며 5日場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忠淸道 地方에서 木川縣, 永同縣, 藍浦縣, 鎭岑縣, 定山縣 등은 邑治에 場市에 개설되지 않고 관할 面里에 場이 開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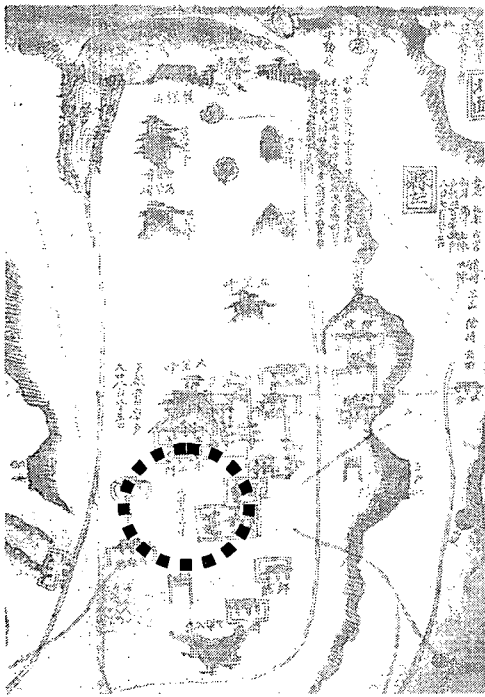


그림 7. 堤川縣 場市

忠淸道 地方에 開設된 場市의 郡縣別 위치는 場市의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邑內 혹은 城內와 城外에서 열렸으며, 城內場은 城 안에서, 邑內場이나 城外場은 대개 官門 1~2里 밖에서 開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忠淸道 地方地圖에서 나타난 場市의 위치는 (그림7.)에서와 같이 客舍 앞이나, 官門 밖의 도로의 교차점인 삼거리에서 場이 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客舍 앞에 場이 많은 이

유는 客舍의 위치가 邑治의 大路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場市의 開設條件과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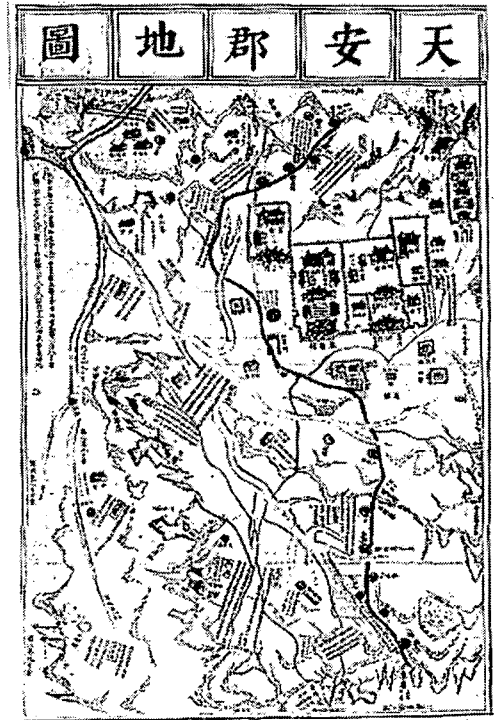


그림 8. 天安郡을 지나는 第6路

朝鮮時代 전국의 주요 道路網은 9개의 大路로 이루어지는데, 增補文獻備考에 나타난 전국의 주요 道路網⁶⁴⁾ 중에서 忠淸道를 경유하는 주 간선도로는 京城에서 동남쪽으로 釜山에 이르는 第四路,

64) 국역 增補文獻備考, 제24권, 輿地考 12, 道理

· 제4로

서울—漢江(10)—板橋站(40)—險川(10)—龍仁(20)—直谷(20)—陽智(20)—佐贊(10)—陳村(30)—廣巖(20)—石仁(20)—崇善(40)—達川(40)—忠州(10)—丹月驛(50)—鳥嶺東華院(20)—慶尙道 聞慶(20)—新院(20)—幽谷驛(20)—德通站(20)—洛院驛(30)—

· 제6로

서울—銅雀津(10)—果川(20)—葛山站(10)—彌勒堂(20)—柳川(20)—中底(25)—菁好驛(10)—振威(8)—素沙(30)—稷山 成歡驛(20)—天安(40)—金蹄驛(18)—德坪(10)—車嶺(15)—廣亭倉(20)—毛老院(25)—公州(25)—敬天驛(40)—魯城(10)—草浦橋(10)—沙橋(10)—恩津(10)—全羅道 礪山(30)—炭峴(20)—參禮驛(20)—全州(30)—

· 제8로

서울—素沙(제6로, 153)—平澤(20)—濁川(10)—要路院(20)—御來縣(5)—曲橋川(15)—新昌(10)—新禮院(20)—仁厚院(20)—廣川(40)—忠淸水營(40)

京城에서 남쪽으로 곧장 統營에 이르는 第六路, 그리고 京城에서 서남쪽으로 忠淸水營에 이르는 第八路가 忠淸道를 통과하고 있었다.

忠淸道地方에 개설된 157개의 場市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場市는 恩津縣의 江景場과 稷山縣의 德坪場으로⁶⁵⁾, 이곳들은 邑治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忠淸道の 최대 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교통의 중심지에 규모가 큰 場이 開設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江景은 300年間 商業聚落으로서 발달한 곳⁶⁶⁾으로 第六路가 지나는 恩津縣에 속하며, 德坪은 漢陽에서 統營에 이르는 大路변에 위치한 곳이다.

4-4 郡縣의 鄉校

朝鮮時代 地方 郡縣의 대표적인 教育施設에는 鄉校와 書院이 있었는데, 鄉校는 官學으로서 건국 초인 太祖⁶⁷⁾ 때부터 강조되어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여 적어도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成宗 17年(1488)까지는 전국에 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享하는 文廟라는 하는 제사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漢陽의 成均館을 모방하여 大成殿과 東·西廡로 구성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鄉校의 立地를 살펴보면, 전체 330개의 鄉校중에서 城內에 위치하는 11개의 鄉校와 함께 281개의 鄉校가 邑으로부터 3리 이내에 위치하여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적어도 邑에서 10里 이내에는 모든 鄉校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鄉校의 方位는 전국적으로 볼 때, 東向→北向→西向→南向의 順으로 邑으로부터 東쪽과 北쪽에 64% 정도 위치하고 있었다.⁶⁸⁾

忠淸道地方에 건립된 鄉校는 邑城 內에 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官衙에서 1~3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邑治의 북쪽과 동쪽에 건립되었다. 鄉校의 입지는 (그림 9.)에서와 같이 官衙의 背山과는 별도의 산자락에 독립된 背山을 가지고 독립된 領域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風水的 立地條件을 만족하기 위해 邑治 혹은 官衙와 坐向을 달리 구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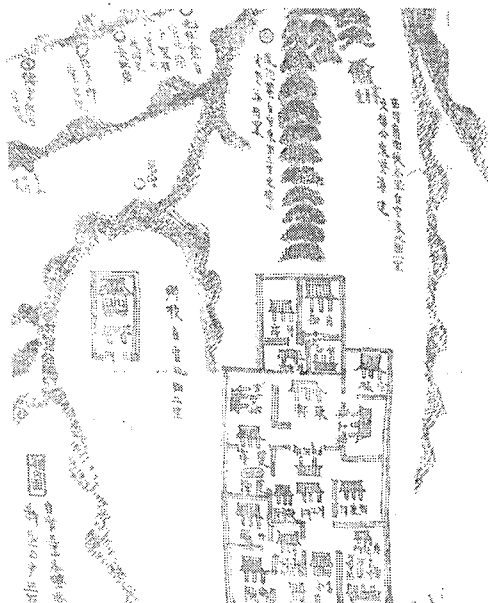


그림 9. 忠淸道 懷德鄉校

鄉校에는 文宣王을 위시하여 유교의 聖賢을 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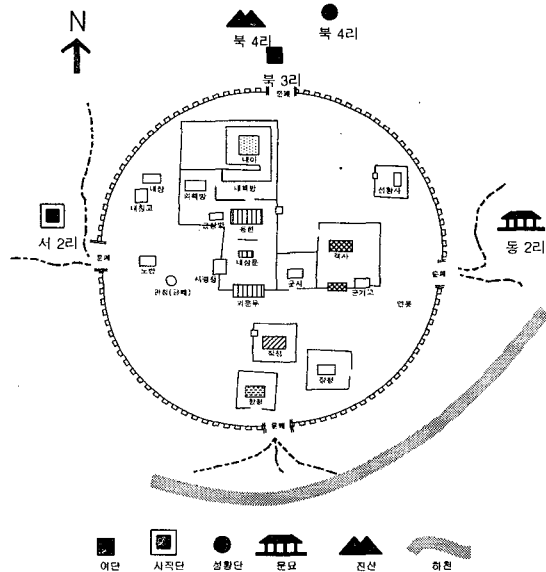


그림 10. 邑治의 空間構造 概念圖(沔川郡)

65) 『萬機要覽』財用篇 5, 各廳條, 附 鄉市

66) 洪慶姬,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6, p.121

67) 국역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祖 1年, 壬寅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고... 학교를 일으켜서 人才를 양성하고...”

68) 李正秀, 朝鮮時代 鄉校·書院建築 構成形式의 比較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7, pp.22-27

5. 結 論

朝鮮後期에 편찬된 邑誌와 地圖 등을 통해 朝鮮時代 忠淸道地方 郡縣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인 邑治의 行政施設을 비롯하여 社稷壇, 厲壇, 文廟, 鄉校 등 국가적인 시설과 조선후기 경제발달과 지역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촉진시켰던 場市 등을 考察하여 邑治의 空間構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後期 忠淸道地方에 邑城이 있었던 郡縣은 13개 고을로 11개 지역은 沿海邑城이며, 나머지 2개 지역인 淸州邑城과 忠州邑城은 兵營과 巨鎭이 설치된 군사적 요충지로서 邑城이 축조된 것이었다. 따라서 忠淸道地方의 邑城 築造는 防禦를 목적으로 築造된 沿海邑城과 軍事的인 요충지로서 중요 거점에 築造된 軍사용 邑城이었다.

그리고 邑城의 築造에서 사용된 기준 尺度는 朝鮮時代 關防을 측량할 때 주로 사용하였던 布帛尺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郡縣에 따라 朝鮮時代に 널리 사용되던 周尺과 營造尺이 혼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忠淸道地方 郡縣의 邑治는 대부분 남향하고 있으며, 또한 邑治를 鎭護하는 鎭山을 가지고 있었다. 邑治의 坐向과 鎭山의 관계는 鎭山을坐로 삼고 邑治의 전면으로 주요하천이나 明堂川을 가짐으로써 風水의 要諦가 藏風得水로 표현되듯이 鎭山과 明堂川은 邑治의 입지에서 상호대응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邑治의 중심시설인 官衙의 대표적인 시설로는 朝鮮時代 邑誌에 대부분 기재되는 客舍, 東軒, 內衙, 官廳, 鄉廳, 作廳, 邑司 등의 시설들이며, 郡縣의 행정상 위치, 규모,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별도의 기능을 갖춘 건물이 구성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官衙시설은 客舍, 東軒, 內衙, 鄉廳, 그리고 作廳이나 將廳 등의 行政廳으로 구성되고, 기타의 시설들은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건물들로 이루어진다.

셋째, 朝鮮時代 地方郡縣에는 文廟, 社稷壇, 城隍壇, 厲壇 등의 壇廟시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건립되었다. 忠淸道地方의 경우, 대부분

의 邑治에서 社稷壇과 厲壇은 서쪽과 북쪽에 위치되어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城隍壇은 邑治의 鎭山에 위치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文廟와 같이 일정한 원칙이 없이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건립되었다.

忠淸道地方의 邑治에 개설된 場市는 郡縣의 규모가 크고 品階가 높은 4개의 牧에서 특히 많은 場市가 개설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왕래와 물자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었다. 특히 場市는 客舍앞에 많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客舍의 위치가 邑治의 大路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場市의 開設條件과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參 考 文 獻

1. 國譯 朝鮮王朝實錄, (주)누리미디어
2. 國譯 增補文獻備考, (주)누리미디어
3.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4.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 上』, 1979
5. 『萬機要覽』
6. 『林園經濟志』
7. 韓國地理志叢書 邑誌 忠淸道篇-『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湖西]邑誌』, 1984
8. 서울대학교 奎章閣,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편, 1998
9. 申榮勳, 韓國古建築斷章 上, 東山文化社, 1975
10. 洪慶姬,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6
11. 孫禎陸,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1988
12.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989
13. 尹張燮 編著, 韓國建築史論, 技文堂, 1990
14. 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 1991
15.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95
16. 檀國대학교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1997
17.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研究, 國學資料院, 1997
18. 李重煥, 李翼成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1998
19.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20.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8
21.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22. 李羲權,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23.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9
24.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조선시대, 경세원, 2000
25. 안길정, 관아이야기, 사계절출판사, 2000
26. 李相棊, 朝鮮中期 邑城에 관한 研究, 서울대 碩士論文, 1983
27.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檀國大 碩士論文, 1988
28. 柳泳秀, 朝鮮時代 客舍建築에 관한 研究, 고려대 碩士論文, 1989
29. 車勇杰, 高麗末·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研究, 忠南大 博士論文, 1988
30. 崔榮喆,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弘益大 博士論文, 1994
31. 都龍吳, 儒學思想을 바탕으로 한 傳統教育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淸州大 博士論文, 1995
32. 林東日, 朝鮮時代 官衙의 立地와 坐向을 통해 본 都·邑의 造營論理 研究, 漢陽大 博士論文, 1996
33. 崔壹聖, 忠州牧 研究, 祥明大 博士論文, 1997
34. 朱南哲,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8卷 116號, 1984
35. 朱南哲, 客舍建築의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卷 3號, 1986
36. 李廷國 外, 朝鮮時代 鄉校建築의 配置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6卷5號, 1990
37. 金起德·李在憲, 朝鮮後期 忠淸道 官衙建築의 配置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歷史研究, 第10卷 4號, 2001
38. 金善範·韓三建, 朝鮮時代 邑城圍郭의 用尺에 관한 研究,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國土計劃」第33卷 第2號, 1998
39. 芮明海, 朝鮮時代 地方都市의 空間構成原理에 관한 研究(1), 大韓國土·都市計劃學會誌「國土計劃」第33卷 第6號, 1998
40. 김선범, 城郭의 都市原形의 解釋,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권 2호, 1999
41. 李琦錫, 舊邑 聚落에 관한 研究, 地理學, 第3卷 第1號, 1968
42. 金泰永,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 歷史學報, 第58輯, 1973
43. 崔秉瑄, 韓國 古都邑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vol.11, No.2, 1973
44. 方相鉉, 朝鮮前期城郭機能考, 단국사학회, 史學志·朴武成博士華甲紀念論叢, 第16輯, 1982
45. 李景植, 16世紀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 韓國史研究, vol.57, 1987
46. 李勛相, 朝鮮後期 邑治 社會의 構造와 祭儀, 歷史學報, 第147輯, 1995
47. 許仁旭, 忠州 邑城 考, 藥城文化 第14號, 1993

A Study on the Spatial Structure of ChungChong-Do Province Eupchi in the Late Chosun Dynasty

Kim, Ki Deok

(Industr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eongju University)

Lee, Jae Heon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spatial structure of Eupchi(邑治) on Chungchong province with Chungchong-do regional maps(忠清道地方地圖) and Eupjis(邑誌, topography) being compil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t in this study, we make conclusions as follows;

1. Gunhyeon(郡縣) which had been Eupseong(邑城) on Chungchong-do in Chosun dynasty was 13 provinces, and the construction of Eupseong was the coast Eupseong built for the purpose of defense and military Eupseong built at Byeongyeong(兵營) and Geojin(巨鎭). And a measu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a castle was Pobaekcheok(布帛尺) used to survey a frontier defence in Chosun dynasty, also Jucheok(周尺) or Yeongjocheok(營造尺) could be assumed to be wide use at that time.

2. Eupchi of Chungchong-do Gunhyeon was almost disposed to the south direction, also had been Jinsan(鎭山) safeguarding it. With relation to Jwahyang(坐向) and Jinsan, its Jinsan and Myeongdang-cheon(明堂川) match each other in location of Eupchi, as it get Jinsan sat, and take main river in front of it.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o be the center of a Eupchi is organized into Gaeksa(客舍), Dongheon(東軒), Naea(內衙), Hyangcheong(鄉廳), and practical business facilities, Jakcheong(作廳) or Jangcheong etc., the others is composed for the use of support of those.

3. In most Eupchi in Chungchong province, the layout Sajikdan(社稷壇) and Yeodan(厲壇) was gone with a principle as they were disposed in the west and the north with Eupchi. Seonghwangdan(城隍壇) and Munmyo(文廟) was built in defiance of a principle, as a condition of province. Jangsi(場市) of Eupchi was opened in front of government office or Gaeksa, and the Gunhyeon which had Eupseong was established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Eupseong.